

공동주택단지의 여가시설 선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Leisure Facilities in Apartment-Complex

신화경*

Shin Hwa-Kyoung

Abstract

To design common facilities that support residents' leisure activities is one of the contemporary issues in Korea. People became interested in the leisure facilities in near-home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uses and needs of leisure facilities of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 complexe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elected apartment complexes, and 676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data analysis included frequencies, percentage, mean, and χ^2 -test.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1) Subjects needed the diverse leisure facilities such as sports center and resident's self government facilities. And they needed divers facilities for sports. 2) In terms of location, they needed leisure facilities which was closer to their house. 3) It was found that the respondents preferred safe and various leisure facilities, and the leisure facilities were exclusively used for the residents only, and the use by non-residents should be charged at the expense. Also, respondents were willing to pay additional fee for the better quality of leisure facilities, and sports leisure facilities congregated in one building were highly desirable.

키워드 : 여가시설, 여가공급, 공동주택, 선호

Keyword : leisure facilities, leisure supply, apartment complex, preferenc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주5일근무제의 확대¹⁾와 여가생활을 즐기겠다는 여가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전체 생활에서 여가생활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여가 시간의 증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생활의 비중을 높이고 기본생활패턴 변화를 전망하게 하며,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부여가 양적인 물질 충족에서부터 생활전반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행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가를 중시하고 있다.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의 하나가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여유를 즐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볼 때(Berg, 2001; 강신겸, 1997) 주 5일근무제의 확대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여가내용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여가시간에 비해 활동내용이 아주 제한적이며 수동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특성을 보인다²⁾(통계청, 2000, 2001). 여가활동이 소극적이고 활

발하지 못한 이유를 흔히 여가시간이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김 현주 외(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은 시간이 없어서 여가활동을 못한다고 한 반면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여가 콘텐츠가 부족해서' 여가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시간의 증가가 단순히 여가활동의 증가 및 여가생활의 질적인 발전을 유도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의 개발 및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학습의 수반이 요구됨을 나타내고 있다.

여가활동은 시간과 공간 구조 속에서 펼쳐질 것이고 미래 일상생활전반을 변화시킨다는 점과 여가공간은 그 공간의 애착성과 접근성 및 공간성에 따라 이용률이 달라지게 된다(Bell, et al. 1977)는 점에 근거한다면, 접근

수면 및 가사잡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나 1996년에는 TV 시청(41.2%), 수면 및 가사잡일(29.5%), 스포츠와 여행(11.4%)로 나타나 주로 수동적인 그리고 시간 소모형 여가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00). 여가시간으로는 성인의 경우 하루 5.08시간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요일은 6시간 39분(남자 7시간 4분, 여자 5시간 43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3시간 16분을 대중매체를 이용하는데 할애(TV 시청 2시간 56분)하고 있다(통계청, 2001).

*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부교수

1)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주5일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년 7월에는 금융 및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그 외의 사업장에서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전망임(서울경제, 2002.8.17.1면).

2) 여가활동의 내용을 보면 여가활용방법으로는 1993년까지는

성은 여가공급의 물리적인 요인으로 여가자원의 공급효율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변수가 되며, 이용자 지향형 여가자원에서는 접근성이 여가공급의 1차적 고려사항이 된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삶의 중심축은 직장에서 가정으로, 일에서 개인 생활로 전환되고 있으며(이장영 등, 2004) 정부에서는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 문화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생활권내 여가 인프라 구축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하는 등(박영대, 2004) 일상 생활권에서의 여가공급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가공급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여가수요인 여가활동의 활성화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여가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가이용자의 현재 이용수준과 향후 이용희망 수준인 선호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 및 선호를 파악하여 여가사회에 대응되는 지역사회, 특히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시설 및 공간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관련 시설 설치기준 특성 파악한다. 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시설 이용 실태 및 선호를 파악한다. 셋째,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시설 및 여가 공간에 관한 평가 및 요구를 파악한다.

1.2. 연구 방법

아파트 백과(2004)에서 소개된 아파트 중 5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갖춘 아파트 단지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476단지를 건립시기, 단지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추출된 35개 단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무선 표집된 35개 공동주택 단지 각각의 거주자 20명, 총 7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주거학 전공자 11명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690부를 회수하고 이중 676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도구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여가시설 이용 실태, 여가시설 필요도 및 선호 위치, 여가시설 만족도 및 개선요구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Window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X²-test를 실시하였다.

2. 연구 결과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2.9%였으며 가족구성은 '부부+자녀(2세대)'가 78.4%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노부부+부부+자녀(3세대)'가 9.2%, '부부만(1세대)' 8.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40세미만'이 3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50세미만'이 22.6%, '50세 이상'이 1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평균은 39.17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1.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직업은 주부가 50.2%로 가장 많

이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직업은 일반사무직이 26.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문기술직이 17.7%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는 '200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월200~300만원 미만'이 25.6%, '월300~400만원미만'이 16.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5.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평균 거주기간은 4.34년이었다. 그리고 거주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면적은 34.83평으로 나타났다.

2.2. 여가시설의 이용실태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여가활동 장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여가활동 장소를 '집', '단지 내', '단지 밖'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많이 행해지는 여가활동³⁾은 주로 '집'과 '단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주택 내 여가시설별 이용 여부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시설 이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산책로 이용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터(49.3%), 공원(41.7%), 첨단방/사우나(21.0%)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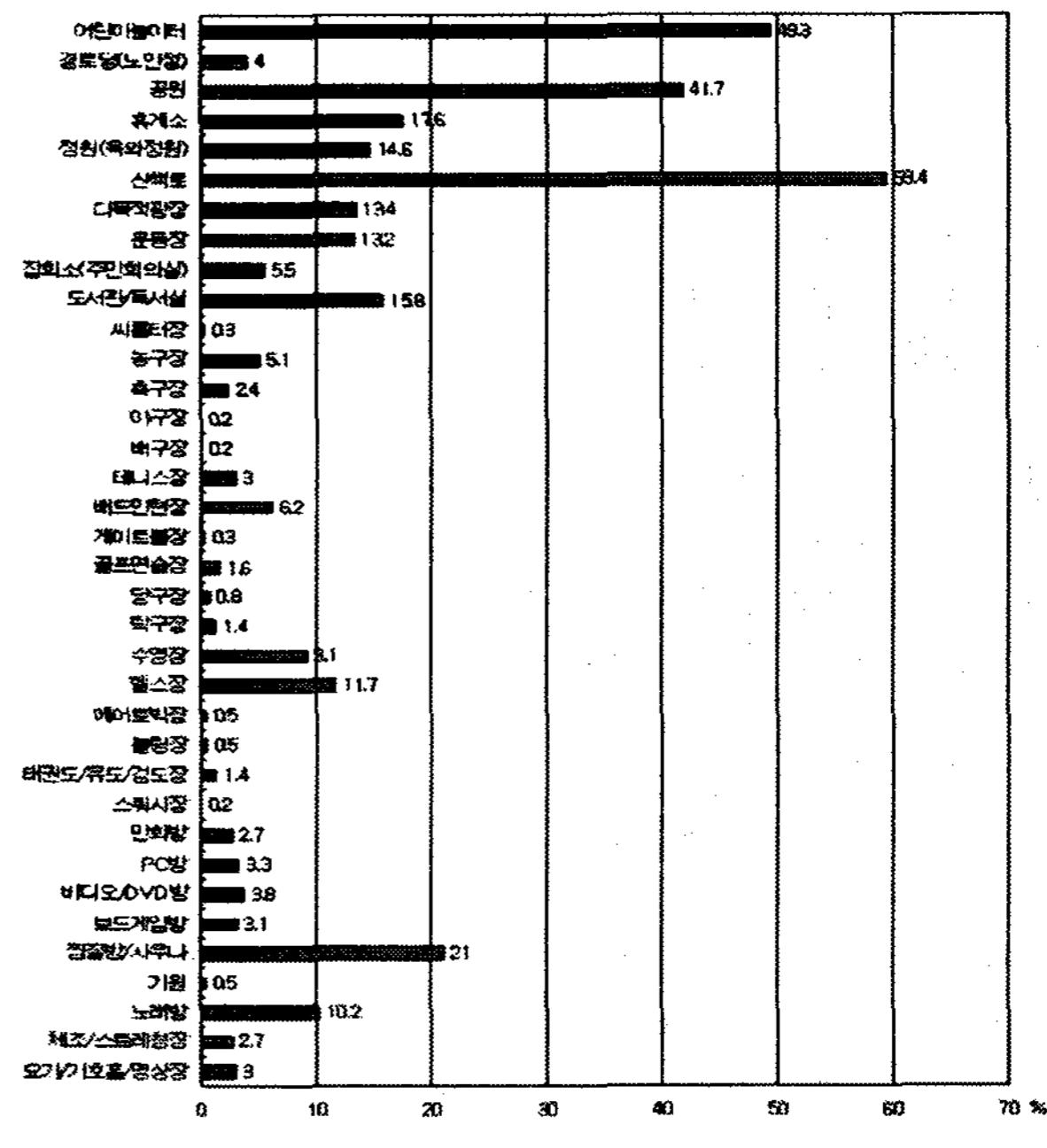


그림 1. 여가시설 이용여부

2.3. 여가시설에 대한 선호

1) 선호하는 여가활동 장소

여가활동별 선호하는 여가활동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 현재 여가활동에 비해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비율이 증가

3) 조사대상자의 10%이상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하였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이나 '단지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지 내'에서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 장소와 선호하는 여가활동 장소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χ^2 -test한 결과, '노래부르기', '춤추기', '데이트/친구만남', '가족/친구끼리 대화', '카드놀이/고스톱', '독서/만화책보기', '영화/음악회/연극관람', '음주', '헬스', '수영/아쿠아로빅', '체조/스트레칭/에어로빅', '요가/기호흡/명상', '농구', '배드민턴', '악기/연주', '정원가꾸기/원예', '음악감상', '컴퓨터배우기', '산책/조깅하기', '목욕/사우나/찜질방' 등의 여가활동 선호장소는 현재의 여가활동과 집단간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현재에 비해 미래에는 사교적 행동, 경쟁적 행동, 대체적 행동, 감각적 행동, 신체적 행동, 창작적 행동, 변화추구 행동에 해당하는 다수의 여가활동을 '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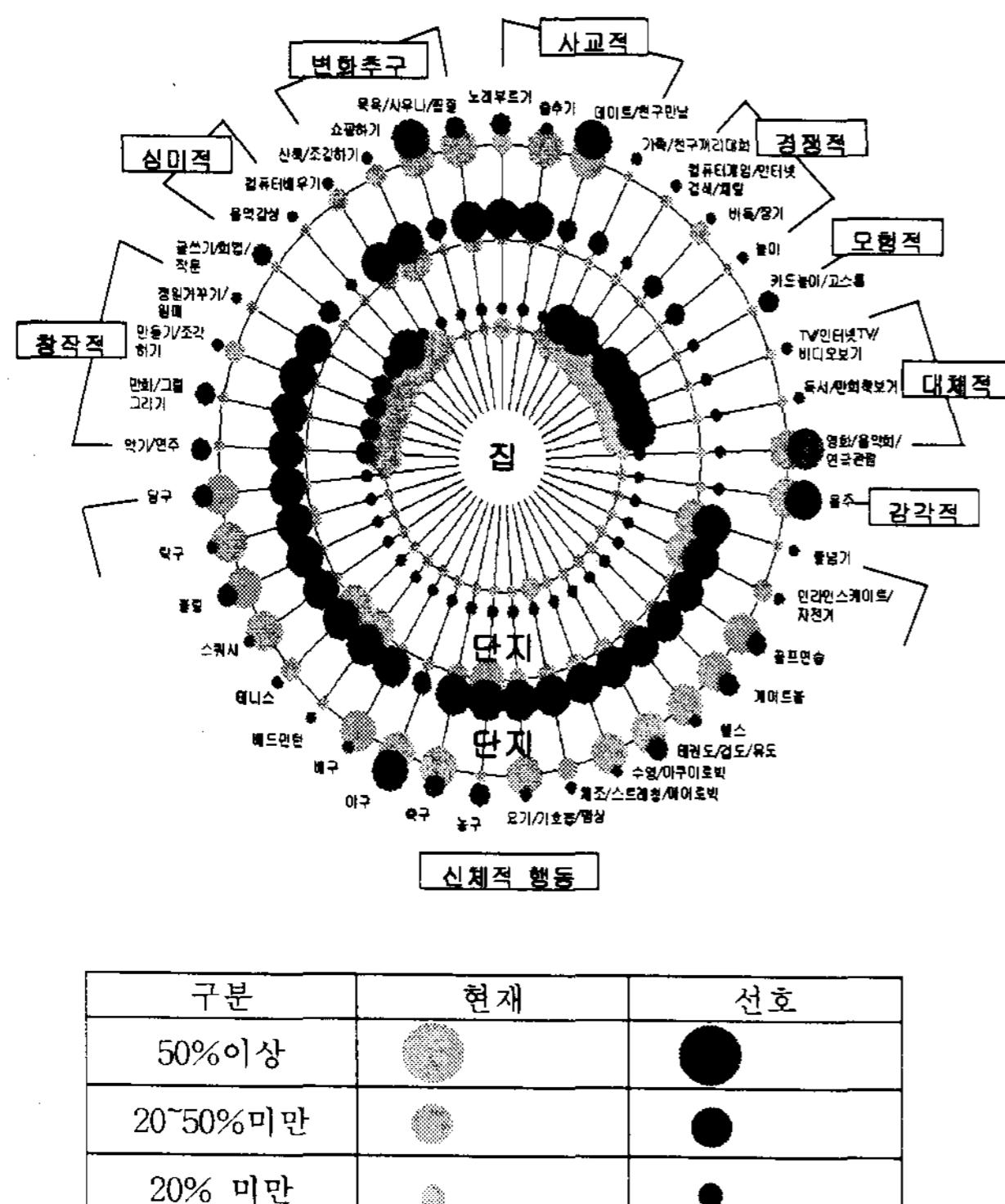


그림 2. 현재하는 여가활동장소와 선호하는 여가활동장소 비교

2) 여가시설별 필요도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시설별 필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필요하다(5)', '약간필요하다(4)', 그저 그렇다(3), 별로 필요없다(2), 전혀 필요없다(1)'의 5점 척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산책로'에 대한 필요도는 4.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터'(4.60), '공원'(4.55), '경로당'(4.43), '도서관/독서실'(4.30), '헬스장'(4.19), '휴게소'(4.07), '정원'(3.99), '수영

장'(3.98)순으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여가시설별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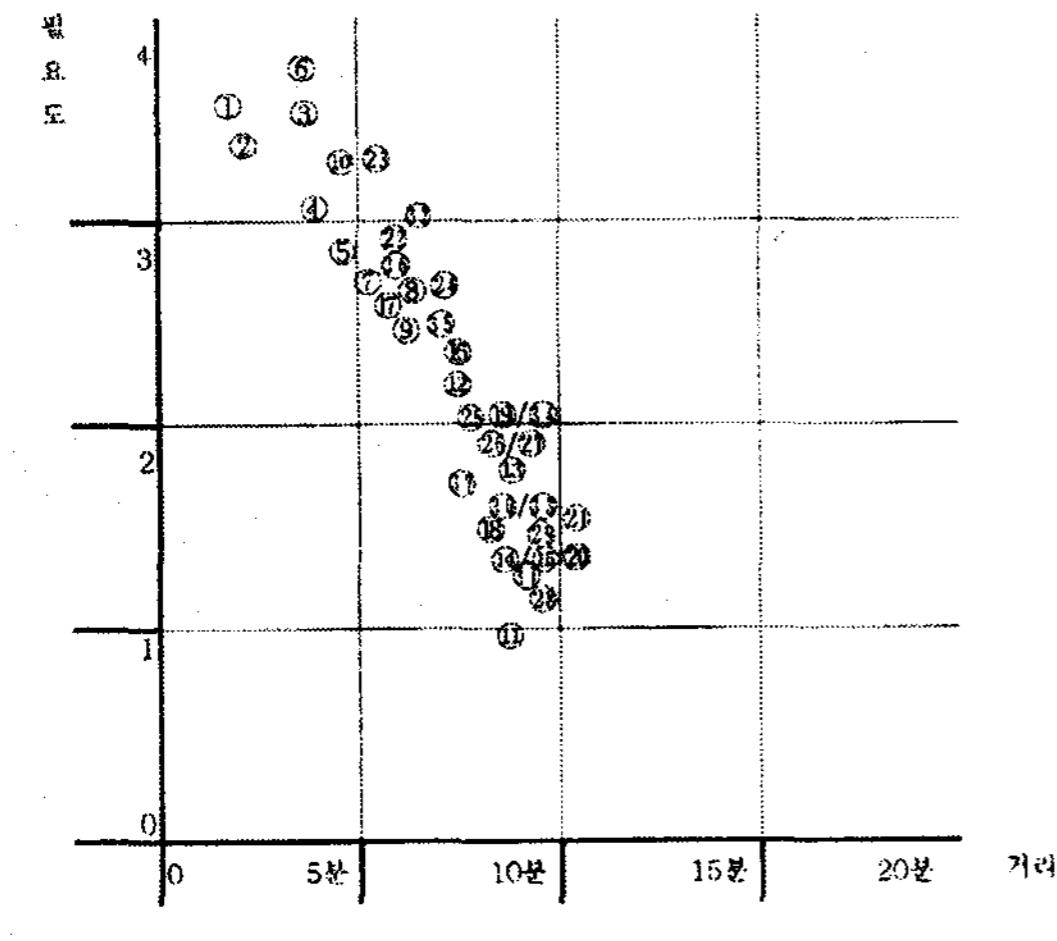
N=676

여가시설 종류	평균	S.D	여가시설 종류	평균	S.D
어린이놀이터	4.60	0.82	골프연습장	2.98	1.40
경로당(노인정)	4.43	0.93	당구장	2.37	1.22
공원	4.55	0.83	탁구장	3.21	1.38
휴게소	4.07	1.06	수영장	3.98	1.17
정원(옥외정원)	3.99	1.14	헬스장	4.19	1.08
산책로	4.71	0.59	에어로빅장	3.76	1.19
다목적광장	3.82	1.16	볼링장	3.11	1.34
운동장	3.71	1.19	태권도/유도/검도장	3.02	1.28
집회소(주민회의실)	3.46	1.11	스쿼시장	3.03	1.36
도서관/독서실	4.30	0.99	만화방	2.41	1.23
씨름터장	2.09	1.11	PC방	2.56	1.34
농구장	3.38	1.35	비디오/DVD방	2.61	1.36
축구장	2.93	1.33	보드게임방	2.46	1.32
야구장	2.40	1.20	찜질방/사우나	3.96	1.13
배구장	2.38	1.11	기원	2.53	1.27
테니스장	3.44	1.28	노래방	3.03	1.36
배드민턴장	3.66	1.23	(체조/스트레칭)장	3.55	1.34
게이트볼장	2.62	1.21	(요가/기호흡/명상)장	3.84	1.21

3) 여가시설 위치에 대한 선호

여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여가시설의 선호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걸어서 0~5분 미만', '걸어서 5~10분 미만', '걸어서 15~20분 미만', '걸어서 20분 이상' 등 5단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걸어서 0~5분 미만'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휴게소, 정원, 집회소가 많았으며, '걸어서 10~15분 미만'의 경우 축구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여가시설은 '걸어서 5~10분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나 노인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걸어서 0~5분 미만'의 위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걸어서 5~10분 미만'의 위치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여가시설의 필요정도와 선호하는 위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36개의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정도의 평균과 선호하는 거리의 평균을 정리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필요도가 높은 것일수록 가까이 있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 ① 어린이놀이터 | ⑩ 도서관/독서실 | ⑯ 골프연습장 | ⑭ 만화방 |
| ② 경로당(노인정) | ⑪ 씨름터장 | ⑫ 당구장 | ⑮ PC방 |
| ③ 공원 | ⑫ 농구장 | ⑬ 탁구장 | ⑯ 비디오/DVD방 |
| ④ 휴게소 | ⑯ 축구장 | ⑭ 수영장 | ⑰ 보드게임방 |
| ⑤ 정원 | ⑮ 야구장 | ⑮ 헬스장 | ⑯ 펌질방/사우나 |
| ⑥ 산책로 | ⑯ 배구장 | ⑯ 에어로빅장 | ⑯ 기원 |
| ⑦ 다목적광장 | ⑯ 테니스장 | ⑯ 볼링장 | ⑯ 노래방 |
| ⑧ 운동장 | ⑯ 베드민턴장 | ⑯ 태권도/유도/검도장 | ⑯ (체조/스트레칭)장 |
| ⑨ 집회소(주민회의실) | ⑯ 게이트볼장 | ⑯ 스퀴시장 | ⑯ (요가/기호흡/명상)장 |

그림 3. 여가시설의 필요도와 선호위치

2.4.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

1) 시설측면에서의 요구

시설측면에서의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시설의 페적성, 시설의 안전성, 시설의 규모 확대, 시설의 다양성, 시설의 프로그램, 시설의 접근성, 시설의 경제성으로 구분하여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설의 안전성이 4.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의 다양성(4.24), 시설의 페적성(4.21), 시설의 프로그램(4.14)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여가시설 측면에 대한 요구

개선되어야 할 사항	평균	S.D
시설의 페적성	4.21	0.96
시설의 안전성	4.27	0.99
시설의 규모 확대	3.90	1.02
시설의 다양성	4.24	0.94
시설의 프로그램	4.14	0.96
시설의 접근성	3.83	1.03
시설의 경제성	3.81	1.04

2) 이용측면에서의 요구

이용측면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 '단지 내 여가시설은 단지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 6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부인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32.1%), '기타'(0.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시설은 단지주민만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이용측면에서의 요구

구분	f	%
단지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451	67.0
외부인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	216	32.1
기타	6	0.9
계	673	100.0

3) 비용측면에서의 요구

비용측면에서의 요구에 대한 응답결과 '단지주민과 외부인의 이용비 부담을 차등하게'가 6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지주민과 외부인의 이용비 부담을 동등하게'(21.7%),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단지 내 여가시설의 경우 단지 주민만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부인과 함께 이용할 경우 여기시설 이용비를 외부인과 차등하게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비용측면에서의 요구사항

구분	f	%
단지주민과 외부인의 이용비 부담을 동등하게	212	21.7
단지주민과 외부인의 이용비 부담을 차등하게	448	67.1
기타	8	1.2
계	668	100.0

4) 환경측면에서의 요구

여가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의 거주의사에 대한 응답 결과, 살고 싶다가 97.8%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여가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진 단지의 선택 의사에 대한 응답 결과 분양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도 선택한다가 7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르겠다(12.0%), 선택 안한다(10.3%)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여가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의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분양가의 추가 부담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여가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의 거주 의사와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진 단지 선택 의사

구분		f	%
여가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의 거주 의사	살고 싶다	658	97.8
	살고 싶지 않다	6	0.9
	모르겠다	9	1.3
	계	673	100.0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진 단지 선택 의사 (분양가 추가 부담 시)	선택 한다	523	77.7
	선택 안한다	69	10.3
	모르겠다	81	12.0
	계	676	100.0

스포츠 관련 여가시설의 형태에 대한 응답 결과, '각 스포츠시설은 하나의 건물에 통합된 형태'가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 스포츠시설은 단지 내 분산된 형태'(20.7%), '모르겠다(4.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관련 여가시설의 형태는 하나의 건물에 통합된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스포츠 관련 여가시설의 형태

구분		f	%
각 스포츠시설은 하나의 건물에 통합된 형태		502	74.6
각 스포츠시설은 단지 내 분산된 형태		139	20.7
모르겠다		32	4.8
계		673	100.0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생활과 이를 대응하는 여가 시설 및 여가 공간 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도입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및 시설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주로 집이나 단지 밖에서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미래에는 현재에 비해 선호하는 여가활동, 특히 신체적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여가활동들을 단지 내에서 하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공동주택 단지계획 시 신체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미래 선호되는 여가활동에 대응되는 공간 및 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시설별 필요도가 높은 것은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공원, 경로당, 도서관/독서실, 헬스장, 정원, 수영장 등으로, 주로 단지 내 여가 시설로는 산책 및 휴식을 위한 공간과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기본 시설은 물론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며, 특히 신체적 여가활동에 관련된 스포츠 관련 시설은 하나의 건물에 통합된 형태가 요구되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내 여가시설 계획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필요한 여가시설의 선호위치를 보면 대부분은 걸어서 10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이 높은 여가시설일수록 가까이 배치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가활성화 유도를 위해 필요도가 높은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물리적 접근성을 좋게 하는 계획이 요구된다.

넷째, 여가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분양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진 공동주택 단지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 수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여가시설 및 공간을 단지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강신겸(2002).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현주·이창형·박소라(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 문화 이용 행태변화. 제 1회 여가·문화 포럼, 여가문화학회.
3. 박영대(2004), 여가생활과 문화정책, 한국여가문화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7-31
4. 아파트 백과(2004), 강남/강북 편, 세진기획.
5. 이장영 외(2004), 여가, 일신사.
6.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7. 통계청(2000, 2001), 서울시 통계연보.
8. Bell, Daniel(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Basic Books Inc.
9. Berg, E. C., Trost, M., Schneider, I. E., & Allison, M.T. (2001). Dyadic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time, and gender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Leisure Sciences*, 23, 35-46.
10. www.nso.go.kr, 통계청.